

IBK가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집중 분석
제조업의 혁신, 메이커 무브먼트

해외시장 ②
가나에 뿌리 내리는 ICT 문화

인사 · 노무
바람직한 근로계약서 작성법

2016. MARCH
VOL. 133

이달의 CEO
안병철 (주)지엔씨에너지 대표이사

지속적 성장 이끈 공정의 힘



3월의표지

(주)지엔씨에너지의 발전기

한국전력 정전 시 또는 비상 시 전기를
공급해주는 비상용 디젤 발전기다.

CONTENTS

2016.03 VOL.133

BUSNISS MANUAL

IBK FOCUS

4차 산업 혁명의 물결

INTENSIVE ANALYSIS

제조업의 혁신, 메이커 무브먼트

ACADEMY

메이커 무브먼트

똑똑하게 활용하기

10~17

ISSUE BRIEFING
02

CEO OF THIS MONTH
안병철 (주)자엔씨에너지 대표이사
04

TAX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는
기회이자 지혜
18

CONSULTING
본색을 드러내는 현금흐름
20

UNIFICATION
북 도발로 촉발된 개성공단 위기
22

IBK REPORT
한눈에 읽는 경제 동향
24

ANNUAL CAMPAIGNS
패러다임의 변화,
중소기업 3.0을 논하다 ㉔
경제의 기틀을 다지는
중소기업 3.0
인사관리 분야
28

OVERSEAS MARKETS ①
인더스트리 4.0,
독일의 미래를 바꾼다
32

OVERSEAS MARKETS ②
가나에 뿌리 내리는 ICT 문화
34

HUMAN RESOURCE
바람직한 근로계약서 작성법
36

MEETING
중소기업 CEO
오찬 간담회
40

TIME OFF
실행력 3배로 높이기
42

HUMANITIES
피렌체 <전망 좋은 방>
사랑과 현실,
선과 악 드러내기
46

CALENDER
이달의 행사·전시 일정
48

RESTAURANT
50

BOOK
51

발행일 2016년 3월 1일(통권 133호) 등록번호 서울중 라 00429 발행인 권선주 편집인 고대진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가) Tel 02-729-6414 Fax 02-729-6605 기획 IBK경제연구소
편집·디자인·제작 한국경제매거진(02-360-4891) 인쇄소 교회사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의 저작권은 IBK기업은행에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비매품



다가오는 봄과 함께 해외로 진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추락하던 수출이 새해 벽두부터 심상치 않다. 2016년 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8.8% 하락하면서 6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 전체 수출액의 77.8%를 차지하는 13대 주요 수출 품목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점은 더욱 충격적이다. 국제유가 급락과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부진, 수출품 단가 하락이라는 ‘트리플’ 악재가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설 연휴 기간 날아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소식은 글로벌 경제 불안감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에 한반도 신냉전 상황을 야기하면서 우리를 사면초가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향후에도 저유가, G2 리스크, 일본중앙은행의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 도입 등 주변 상황은 우호적이지 않고 향후 중소기업의 수출 전망은 더욱 어두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우리 경제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고 자탄할 필요는 없다. 위기는 곧 기회이듯 새로운 글로벌 경제 상황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ICSB^{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 회장인 김기찬 교수는 한국의 저력이 약화된 원인으로 갈라파고스 신드롬을 경고하고 있다.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부족,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동력 부재, 관리자 역할에 안주하는 경영 등 현재 상황에 만족하면서 서서히 도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과 기업가정신의 고양을 정책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맞는 얘기다. 바람이 분다고 엮드릴 게 아니라 바람개비를 만들어 팔아야 할 상황이다.

경제 제재가 해제된 이란에 대한 수출 전망이 밝으며, 중산층 중심의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는 중국은 고품질 소비재의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 인도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에 따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이고, 아세안은 잠재력이 무궁한 높은 성장률이 전망되는 훌륭한 시장이다.

3월^{March}은 원래 로마전쟁의 신 마르스^{Mars}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3월은 전쟁을 위해 행진하는 달이기 때문에 ‘행진’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언제나 설렘으로 맞이하는 3월, 우리 경제도 이제 도약의 길로 행진해야 할 때다. 우리 중소기업도 어려운 국내의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 새로운 길을 찾아 끝없이 행진하길 기대해 본다.

10

이달의 경제 키워드

글로벌 경제 이슈가 많았던 한 달이다. 일본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으나 녹록지 않아 보인다. 유럽도 유럽중앙은행의 재정 건전성 문제로 불안하다. 반면 미국은 8년 만에 실업률 최저치를 기록했다.



01



03



07

02

돈 안 되는 카드 없앤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펼쳐 카드업계는 올해 6,700억 원가량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카드사들이 돈 안 되는 카드 정리를 시작했고 올해 들어서만 50종 이상 카드의 신규 발급이 중단됐다. 비용을 줄여 수익 감소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도 이어지고 있다.

03

개성공단 올스톱

북한이 지난 설 연휴 미사일을 발사해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에 입주 기업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실액은 최소 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기존 대출 혹은 보증 상황을 유예해 만기를 연장해주는 등의 보상지원책과 국내 생산을 도울 대체공장 지원 등을 결정했다.

04

나라 경제 위해 21조 푼다

소비자심리지수·수출액 감소 등으로 내수와 수출 모두 비상이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1분기 자금 집행 규모를 기존보다 21조 5,000억 원 더 증액시켰다. 시중에 돈이 더 많이 돌게 하고 대출을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분기 성장률이 0.2%p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01

금융시장 불안에 치솟는 금값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금값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KRX}의 지난 12일 발표에 따르면 당일 금 거래량은 56.7kg으로 금 시장 개설 이래 최대치를 보였다. 가격 역시 1g 당 4만 8,0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제 금값은 올해 들어 지난 12일까지 18% 이상 올랐다.

05

미국 실업률 8년 만에 최저치

지난 5일 미국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실업률은 4.9%로 2008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줬다. 실업률은 떨어진 반면 임금은 올랐다. 1월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0.5%가 올라 연간 기준으로는 2.5% 상승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0.3% 인상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06

일본 마이너스 금리 시대

일본에서 사상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 제도가 지난 16일 첫 시행됐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도입하는 이번 마이너스 금리 제도는 예치 금액에 0.1%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일본 정부는 은행의 보유 자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시중에 공급해 경기 부양 효과를 얻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현재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등이 시행 중이다.

07

일본 작년 4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

일본의 지난 4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개인 소비가 0.8% 감소했고 그 밖에도 주택투자 1.2%, 공공투자 2.7%가 감소했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엔화 가치가 이번 연말까지 달러당 95엔 선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고 엔화 강세로 일본 경제는 더 활력을 잃을 것이라 전했다.



08



09

08

미국-아세안 정상회의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팜스프링스에서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ASEAN)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오바마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번 정상회의를 적극 개최했다. 미·중 양국이 북한 문제·남중국해·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09

불안한 유럽 은행권

유럽중앙은행(ECB)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드러나며 제2의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실 채권은 늘어나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주가는 급락하고 있다. 특히 도이체방크가 내년 일부 채권에 이자를 미지급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0

브렉시트 가능성 줄다

지난 18~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담이 열렸다. 주된 쟁점은 영국의 EU 탈퇴를 일컫는 '브렉시트'였고, 이를 결정할 국민투표가 6월 23일 실시된다. 브렉시트는 EU 통합 과정의 골칫거리였고 이에 28개국 회원국 정상 만장일치로 영국 잔류를 위한 EU 개혁안 논의에 합의한 것이다.



안병철 (주)지엔씨에너지 대표이사

지속적 성장 이끈 긍정의 힘

국내발전기 분야에서 단연 뛰어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지엔씨에너지는 2015년 한 해 약 1,000억 원을 넘는 매출을 올렸다. 중소 발전기 제조사 중 최초의 코스닥 상장 기업이자 창사 이래 단 한번도 역성장하지 않은 지엔씨에너지. 안병철 대표는 회사의 더 먼 미래, 더 높은 가치를 내다보고 있다.



Company History

- 1989년 한국기술서비스 (지엔씨에너지 전신) 창립
- 1994년 국내 최초 파워팩 제작 납품
- 2004년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 2009년 (주)지엔씨에너지로 상호 변경
무역의 날 삼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환경부장관상 수상
- 2013년 코스닥 상장
- 2014년 특허권 취득(내진스토퍼)
- 2015년 우수조달 물품공급사 선정

비상발전설비 및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기업인 지엔씨에너지는 부단한 노력으로 일군 비상용 발전기 분야의 선두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다. 유망 먹거리인 IDC(Internet Data Center) 비상용 발전기 시장에 매진한 결과, 최근 약 5년간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다방면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그 덕에 지엔씨에너지는 건설경기 영향을 받는 비상용 발전기 업계의 한계를 벗어나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

안병철 대표는 기관학을 전공한 후 현대 상선에 입사해 배의 동력인 엔진의 수리·유지보수 작업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상용 발전기 사업에 확신을 얻었다. 사업을 구상하던 30여년 전 당시, 건설과 함께 비상용 발전기도 일명 ‘뜨는 사업’ 중 하나였다. 안 대표는 전공과 직업적 경험을 살려 과감히 엔진과 발전기 분야 사업에 뛰어들었다.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 연구개발로

Product Summary

지엔씨에너지의 성공 포인트



지속적 연구와 개발로 기술 우위 선점

지엔씨에너지는 창사 이래 27년간 디젤엔진 비상용발전사업, 열병합발전사업, 바이오가스발전사업 등에 노력하며 기술 투자에 사활을 걸었다. 기술 투자는 자연히 경쟁력 있는 기술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근간이 됐고 이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다양한 수요처 확보 등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렇게 쌓은 노하우는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하기 용이한 밑거름이 해주었다. 디젤엔진 발전사업의 경험은 열병합 발전사업에 밑거름이 되어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해외 시장 개척으로 신시장 발굴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는 시장의 크기, 사업의 규모에 연연하지 않고 모두 의미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 결과 여러 경쟁 업체를 물리치고 해외 시장에서 사업 수주를 이어가고 있고 올해는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국가들에 열병합 발전설비 수출을 위해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해외 사업의 첫 시작은 국내 건설사와 국내 업체의 해외 공장에 설치되는 비상용 발전기였다. 해외 지역 중 베트남과는 특히 인연이 깊다.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 공장 수주건에 앞서 베트남 하노이의 랜드마크 빌딩에 비상용 발전기를 설치한 실적이 있다. 이 인연으로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설립했고 향후에도 베트남 시장에 계속 도전할 예정이다.

미래지향적 사업 구상

비상용 발전기만으로도 지엔씨에너지는 충분한 성공을 이뤘지만 그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에너지 분야에 대한 도전을 끊임없이 갈망했다. 미래에 대한 철저한 계획만이 앞으로 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가올 미래에는 사물인터넷^{IoT}의 발달과 함께 IT 집약적인 신사업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신규 서버의 증설과 확장 등으로 IDC의 비상용 발전기 해외 수요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지엔씨에너지를 종합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시키려 한다.

기술 우위를 선점했고 다양한 수요처를 확보하는 등 끊임없이 전진해 왔습니다. 2012년 604억 원, 2013년 685억 원에 이어 지난해는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2017년 매출 목표보다 2년을 앞선 것이죠. 장기적 목표인 매출 2,000억 원 달성 역시 무난할 것으로 자신합니다.”

성공의 핵심은 신뢰와 빠른 판단력

사업을 시작하고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이 없을만큼 꾸준히 성장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힘든 때도 있었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판로 개척에 힘써야겠다고 판단,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시작했다. 아이디어는 가까이에서 얻었다. 거래하던 국내 건설 기업 중 해외 플랜트 진출 기업들을 찾아가 동반 진출을 제안한 것. 기술력과 서비스 등으로 많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었지만 지엔씨에너지만 대표는 과격적 서비스 정책을 시작했다.

“이라크에 상주 직원을 두고 있어요. 이라크에 있는 지엔씨에너지 고객사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바로 서비스해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해외에 상주 직원을 두는 것은 비용 등 다양한 이유로 쉽게 내릴 수 없는 경영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대표는 고객과의 신뢰를 위해 과감하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신뢰는 비단 기업 간에만 쌓이는 것이 아

니다. 지엔씨에너지는 직원과의 신뢰 관계에도 최선을 다한다.

“일을 하다 보면 따라오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방치하거나 업무를 포기하게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설득하고 될 때까지 이끕니다.”

안 대표는 직원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따라올 것이라 믿는 직원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강조했다.

지엔씨에너지가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IDC 비상용 발전기 분야는 안 대표의 빠른 경영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IDC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업들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 저렴한 전기요금, 풍부한 IT 인력, 자연 재해가 적은 지역 환경 등이 그 이유다. 지엔씨에너지는 비상용 발전기로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IDC의 비상용 발전기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유망 사업으로 여기며 기술 투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시장에 대한 빠른 판단이 있었기에 높은 시장점유율 달성도 가능했다. 그 밖에도 미래의 수익 창출을 위해 바이오가스발전의 기술 개발에도 노력 중이다. 바이오가스발전은 미래 지향적인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국산화 연구와 실증사업 완료 후 상업 운전에 돌입했다. 환경부로부터 녹색 기술과 녹색사업 인증을 획득해 기술 경쟁력 역시 갖췄다. 해외 시장 개척도 빠르게 추진 중이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고 휴양지 등이 많아 전력 끊김 방지가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긴장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길이 있을 것입니다.”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Smile Zone 거울이 설치된 스마일존에서는 전직원이 거울을 보고 환하게 웃어야 하는 것이 규칙이다. 긍정적 마음가짐을 위해서다.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남미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을 결정했다. 지난해 도미니카 공화국 푸에르토사와 열병합발전 플랜트설비 공급을 위한 사업 협약을 맺기도 했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 제조업은 지금이 바로 변혁기라고 말했다.

“기존에 고수하던 방식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제조업도 각 기업 나름의 강점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 예측에 대해 언제나 고민하고 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안 대표만의 미래 예측 방법은 신문을 정독하는 것이다.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 1시간 꼬박 신문을 읽는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도 얻고 사업적 새로운 정보는 직원들과 공유한다.

어려워도 앞으로 전진

1993년에는 가족에게 뜻밖의 사고가 생기기도 했고, 유통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한 적도 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힘든 날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지난 일이 됐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근면성실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그렇죠.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더 긴장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길이 있을 것입니다”

특유의 긍정적 마인드로 가족은 건강을 되찾았고 회사는 꾸준히 성장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지엔씨에너지 직원들은 이웃 돌보기에도 소홀하지 않는다. 꽃동네 김장 담그기, 인천연탄은행의 연탄 배달, 양평동 홀몸노인 월 1회 방문 등의 봉사활동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인류에 공헌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는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 글로벌 지엔씨에너지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장기적 목표인 매출 2,000억 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시장을 이해하고 변화에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직원들이 모인 지엔씨에너지라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금처럼 단연 성공을 이어갈 것이라 확신한다. 

6 Key Points

안병철 (주)지엔씨에너지 대표의 경영 노하우를 6가지로 요약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사업 초창기 사기를 당해 힘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일수록 유머, 웃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았다. 월요일 전 직원 조회 시간에 직원들이 각자 한 가지씩 '유머 공유' 시간을 갖는다. 유머의 공유는 매사를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에너지를 가졌다.



독서경영으로 직원과 소통하라

직원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독서경영을 시작했다. 매달 한 권 이상의 책을 읽고 월요일 전 직원 조회를 통해 독서평을 공유한다. 회사에선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 어려운 만큼 책의 역할이 막중하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직원들과 함께 공감하는 힘은 생각보다 크다.



사람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원을 관리하는 일만큼 어려운 것은 없고 이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직원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마라톤 대회도 전사적으로 참여한다. 직원 각자의 행복, 창의력을 위해 회사가 노력해야 한다.



CEO가 먼저 움직여라

안 대표는 좋은 책을 읽은 후엔 직원들과 함께 토론하며 해당 도서의 독서를 장려한다. 매일 읽는 신문에서 찾은 좋은 기사 내용은 전 직원 회의 때 공유한다. 직원들에게 '책을 읽어라' '신문을 봐라' 라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CEO부터 실천으로써 보여주기 위해서다.



뚜렷한 목표는 기업을 바꾼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다. 지엔씨에너지의 회사 방침도 비전을 갖는 것이다. 비전이 있어야 미래를 그릴 수 있고 미래를 그리는 기업에 성공이 있다. 직원 개개인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장은 직접 보아야 한다

중소기업 CEO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대한 이해다.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27년이 됐지만 아직도 현장에 나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현장을 직접 보아야 문제점, 방향성, 미래 예측 등이 가능하다. CEO가 직접 살펴보는 현장에서 경영의 답을 얻을 수 있다.



임근호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증권부와 IT과학부를 거쳐 현재
국제부 기자로 재직 중이다.



영화 <마이내리티 리프트> 생체 컨트롤러 기능을 하는 장갑을 끼고 허공에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물결

프랑스 화장품회사 로레알에는 ‘로봇 상담사’가 있다. 고객이 궁금한 점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에 능숙한 로봇 상담사가 바로 답을 해준다. 인공지능^{AI} 벤처기업 이지옴의 기술이다. 로레알은 또 생명공학 벤처기업 오가노보와 손잡고 인공피부를 3차원^{3D} 프린터로 찍어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어 각광받고 있지만 배양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였던 인공피부 문제를 로레알이 해결한 것이다.

독일 출신 경제학자인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창립자는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6차 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에서 이를 ‘4차 산업혁명’이라 명명했다. 18세기 후반 증기기관에 의한 기계화가 1차 산업혁명이라면 19세기 후반의 대량생산체제 구축은 2차, 1960년대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혁명은 3차 산업혁명에 해당한다는 얘기였다. 슈바프 창립자는 “지금을 3차 산업혁명의 연장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 범위와 속도, 파급 효과에 있어 지금의 기술 변화는 별도의 산업혁명이라 칭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런 주장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제2의 기계시대>란 책을 펴낸 에릭 브린올프슨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와 같은 대학의 앤드루 맥아피 부교수는 “우리는 1차 산업혁명 이후의 첫 번째 기계시대를 지나 두 번째 기계시대로 접어드는 변곡점에 있다”며 “1차 산업혁명 때와 맞먹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이든 제2의 기계시대든, 이들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비슷하다. 공상과학^{SF} 영화 속 세상이 현실화된 미래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미 시연했듯 실시간 음성 통역이 가능해져, 외국어를 몰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애플 아이폰의 음성 비서인 '시리'는 더욱 똑똑해져 언젠가 식당 예약을 해주는 것을 넘어 원하는 이슈에 대한 리포트를 대신 작성해줄 수 있을지 모른다. 집과 회사 사무실에서는 로봇이 사람 일을 거들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화 <마이내리티 리포트>에서처럼 허공에 팔을 휘둘러 집이나 자동차를 설계하는 날이 올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모두가 행복해지는 '멋진 신세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경제구조가 바뀌면서 개인과 기업 모두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릴 전망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량 개발 경쟁이 한창이지만 막상 자율주행차가 현실화되면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높다. 출근 때 타고 나간 차가 운전자 없이 스스로 집에 돌아와 집에 남은 사람을 또 다른 곳으로 태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슈바프 창립자는 "지속적인 혁신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명하복식 명령 체계를 버리고 수평적·협동적 기업문화를 뿌리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자리에 위협에 처하게 된다. WEF는 '일자리의 미래'란 보고서에서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전에 없던 일자리 200만 개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다. 5년간 510만 개의 일자리가 순감소할 것이란 얘기다.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지식노동자의 일자리도 로봇이나 소프트웨어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 옛날과 다른 점이다. 실시간 음성 통역이 발전하면 통역사의 입지는 한층 좁아질 수 있다. 펀드매니저나 자산관리사도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으로 작동하는 인공지능 로봇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MANUAL 1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집과 회사 사무실에서는 로봇이 사람 일을 거들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화 <마이내리티 리포트>에서처럼 허공에 팔을 휘둘러 집이나 자동차를 설계하는 날이 올 것이다.

MANUAL 2

제조업의 혁신, 메이커 무브먼트

2016년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바프 다보스포럼 회장은 지구촌 곳곳에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그것이 모든 시스템을 바꿀 것임을 알렸다.

MANUAL 3

메이커 무브먼트 똑똑하게 활용하기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판 메이커 무브먼트인 K-Maker Movement 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창작 공간을 통해 메이커 무브먼트가 본격 태동하고 있다.



김원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원

창조경제문화기획실에서
메이커 산업을 연구한다.

제조업의 혁신, 메이커 무브먼트

2016년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바프 다보스포럼 회장은 지구촌 곳곳에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그것이 모든 시스템을 바꿀 것임을 알렸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한 첨단 제조업의 부활이 생산과 경제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운 창의 만들기 계층인 '메이커'가 자리하고 있다.



다보스포럼 지난 1월 20~23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메이커 무브먼트는 뜨거운 화제였다.

고가의 전자수수를 개인이 직접 3D 프린터를 활용해 제작하고, 기업에서 생산한 스케이트 보드를 새로운 구동 방식의 전동 스케이트 보드로 만들어 낸다. 제작비는 소셜 펀딩을 이용해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마켓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이와 같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을 ‘메이커’라고 한다. 메이커라는 용어가 세상에 등장한 것은 미국 최대 IT 출판사인 오라일리 미디어 공동 창업자 데일 도허티가 쓰면서부터다. 그는 2005년 <메이크>라는 잡지를 통해 새로운 만들기를 이끄는 제작 인구를 메이커로 정의했다. 중요한 것은 메이커들이 단순 취미나 즐거움을 향유하는 문화 계층에 머무르지 않고 생산과 경제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메이커 무브먼트’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메이커 무브먼트에서 개인은 누구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다. 레이저 커팅, 3D 프린터 등의 디지털 장비가 구축된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부족한 기술은 메이커 스페이스의 전문가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자들의 협업으로 해결하며, 이를 제작하기 위한 자금은 소셜 펀딩을 통해 모은다. 아이디어에 머무르거나 특정 개인이나 가정이 개인만을 위한 단계에서 벗어나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만

든 스마트폰 카드 리더는 유리 공예품 제작 경험을 가졌던 개발자 잭 돌시가 미국의 대표 메이커 스페이스인 테크숍에 시제품을 가지고 방문한 후 사업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전자잉크 스마트 워치로 유명한 페블은 개인 개발자였던 에릭 미지코프스키가 킥스타터를 통해 약 7만 명으로부터 1,000만 달러를 펀딩 받아 제품 양산에 들어간 후 스마트 워치 시장의 강자로 부상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메이커 무브먼트에서 개인은 소비 주체가 아닌 창조와 생산의 주인공으로 변화하고 있다.

제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

메이커 무브먼트가 특별한 것은 개인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 주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제조업 부활을 위한 메이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오늘의 DIY가 내일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처럼 미국정부는 메이커 운동을 제조업 부활을 위한 산업혁신의 동력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메이커 무브먼트에서
개인은 소비주체가 아닌
창조와 생산의 주인공으로
변화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2016년까지 학교 1,000여 곳에 3D 프린터 등 디지털 제작 도구를 갖춘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및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2014년 6월엔 백악관에서 메이커페어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매년 6월 18일을 ‘메이커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강한 분야인 제조업 혁신을 위해 ICT와 제조업을 연계한 ‘인더스트리 4.0’ 계획을 발표하고 민간 메이커 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쾰른 공공도서관, 드레스덴 대학 도서관, 포츠담 SLB 도서관 등에서 메이커 활동 관심 계층을 대상으로 3D프린팅 워크숍, 교육, 협업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베이징·상하이·선전을 중심으로 공장형 제조기업, 하드웨어 판매업체, 사물인터넷 연계 창업공간, 커뮤니티(팝랩·해커스페이스) 등 창업과 관련한 메이커 운동이 이뤄지고 있다. 또 최근에는 ‘BAT(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를 비롯해 샤오미·xiaomi가 창업 영웅으로 등장하면서 1인 창작자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직접 1억 명의 메이커를 양성해 중국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을 세울 만큼 현지 열기가 뜨겁다.

한국형 메이커 무브먼트의 현주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 메이커 무브먼트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메이커 페어에서의 오바마 대통령 미국 정부는 메이커 운동·메이커페어·메이커의 날 등을 통해 정부 주도의 메이커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무한상상실 한국 정부는 오프라인 공공시설에 무한상상실을 설치해 국민이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D 프린터와 스캐너 등 디지털 장비를 갖춘 오프라인 공공시설인 메이커스페이스 ‘무한상상실’을 전국 17개 시·도에 58곳을 설치하고 메이커들을 위한 아이디어 실현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각 지역에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구축해 시설과 디지털 장비 사용뿐만 아니라 메이커 창업 등 메이커들의 사업화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도 관심을 쏟고 있다. 덧붙여 메이커스페이스 구축과 함께 메이커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메이커페스티벌, 메이커톤, 해커톤 등과 같은 다양한 메이커 관련 문화 행사도 개최한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이 메이커 문화의 저변 확대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사업화를 통해 시장에서 성과를 도출하기에는 부

족한 실정이다. 2015년 7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서 메이커 사업화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메이커 무브먼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것도 아직은 메이커 창업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지금 한국의 메이커 무브먼트는 저변 확대 **ZERO TO MAKER**를 넘어 시장 진입 **MAKER TO MARKET**으로 넘어 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메이커들이 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온·오프라인 마켓 등을 통한 자유로운 거래를 지원하고, 메이커들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과 협업 체계 마련 등의 지원이 동반되는 필요하다고 전망된다. 

메이커 무브먼트 똑똑하게 활용하기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판 메이커 무브먼트인 K-Maker Movement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메이커 교육·포럼 등이 진행되고 있고 창작 공간을 통해 메이커 무브먼트가 본격 태동하고 있다.



성수 메이커 스페이스



서울시가 2015년 사물인터넷^{IoT} 1인 제작자를 위한 '성수 메이커 스페이스'를 열었다. 328㎡의 공간 제공은 물론 생산 장비도 대여해준다. 더불어 메이커 인력 확대를 위해 라즈베리 파이 등 오픈 소스 하드웨어 기반 수준별 IoT 교육도 실시한다.

특허·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컨설팅과 다누리매장·서울숍 등을 통해 제품 홍보를 하고 성수동 인근 소셜 벤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화를 이끌어 내는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센터 내 IoT 관련 입주기업 및 '서울 앱 창업센터'의 앱 개발자와 메이커가 함께 생활 밀착형 앱세서리 **APP+Accessori**를 개발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창작자를 고려해 평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며 5인 이상의 프로젝트 활동을 위해 토요일도 개방한다. 이용률이 높고 우수한 시제품을 제작하는 회원들에게는 창업희망 사무공간도 제공된다.

시설 현황 다목적홀, 대형기기실 등의 창작공간과 3D 프린터, CNC라우터, 레이저 커터 등 50여 종의 장비

홈페이지 www.seongsu.center

주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성수동 아크밸리 성수IT종합센터 2층

문의 02-2115-0525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한민국 메카트로닉스 허브'라는 비전으로 출범했다. 센터에 자리한 '메이커 스페이스 네트워크'는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하기 위해 자유롭게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3D 모델링 & 3D 프린팅 교육, 아두이노 키트를 활용한 교육, 메이커스 데이(딱수달 첫째 주 수요일 개최), 메이커 페스티벌(상·하반기 개최), 메이커 톤 행사(무박 2일 동안 진행되는 경진대회) 등이 있다.



메이커 스페이스 네트워크

시설 현황 작업 및 교육 공간(최대 20명 수용 가능)
홈페이지 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문의 070-7726-4259

정부 주도의 메이커 스페이스인 '무한상상실'은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공간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한 전국 단위의 공간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017년까지 전국 227개, 시·군·구당 1곳 이상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58곳이 운영 중이다. 프로그램은 실험·공방, 스토리텔링, 아이디어 클럽 등이다.



무한상상실

시설 현황 3D 프린터, isense, 커팅플로터, 평판 프린터 등(운영기관별 상이)
홈페이지 www.ideaall.net
문의 02-559-3879

민간 주도의 메이커 스페이스인 팹랩 Fab Lab은 레이저 커터, 3D 프린터 등 디지털 제작장비를 통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공간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MIT 미디어랩에서 처음 탄생, 제작실험실을 뜻하는 용어다. 현재 전 세계 36개국에서 127곳이 운영 중이다. 단순 방문은 매우 목요일 가능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팹랩 서울

시설 현황 레이저 커터, 3D 프린터, 비닐 커터, Mini CNC 등
홈페이지 fablab-seoul.org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59 550호
문의 fablab@tideinstitute.org



이정미 IBK기업은행
WM사업부 회계사
중소기업 CEO를 비롯한
VIP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세무 전문가다.

3월로 종료되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자진신고 해야 할까?

최근 국세청은 국세청이 인지하고 있는 자진신고 대상 유형을 밝히며 대대적으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홍보 중이다. 자진신고제도 종료 한 달을 앞둔 상황, 납세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오는 3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향후 역외소득·재산 은닉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과 이를 통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계획을 밝히자 자진신고 제도 종료 한 달 여를 앞두고 자진신고 여부를 고민하는 납세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오는 3월말까지 국외소득·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과소신고한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과거 소득을 신고하고 미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나 과태료, 외국환거래법상의 과태료 등을 면제하고 국외소득·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조세포탈, 외국환거래신고의무 위반 등 범죄에 대한 형사상 관용조치 혜택을 부여한다.

구분	내용
신고기간	2015.10.1~2016.3.31
신고대상자	세법상 거주자·내국법인(역외소득 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자 제외)
신고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미달세액의 최대 40%) -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과태료 면제(계좌잔액의 최대 10%) - 외국환거래신고위반 과태료 면제(위반행위 건당 5천만원 이하) - 해외계좌위반 등 명단공개 면제 -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관용조치

자진신고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국내 세법상 거주자(내국법인 포함)는 전세계 소득을 국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해외자산 취득을 위해 자금을 유출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특정 자산의 보유현황도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3월말까지 역외소득·재산을 자진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 미신고·과소신고된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와 동시에 과거 해외에 보

유증인 특정자산 현황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표1] 자진신고서 신고·납부 세금 및 제출서류

구분	거주자	내국법인
신고·납부 세금	-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 상속세 · 증여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 법인세 -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추가 제출서류	- 해외금융계좌신고서(매월 말 잔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금융계좌, 단, 2013.12.31.까지는 매일* 말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 해외현지투자(해외현지법인 투자, 해외부동산이나 이에관한 권리 취득)명세서	

*기존 발행 책자의 '매월'을 '매일'로 수정합니다.

국세청이 인지하고 있는 자진신고 대상 유형이란?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자진신고대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본인이 국세청 공개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자진신고서 혜택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례	자진신고 내용 및 혜택
1 A씨는 고객의 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OO국 계좌에 예치해오던 중 국내에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 반입	(이자)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해외금융계좌미신고과태료,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면제
2 B씨는 OO국에 있는 부친 명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수년동안 외국에 있는 B씨 계좌로 이체 받아 사용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과태료 면제
3 C씨는 OO국에 주택을 2개 취득하여 하나는 유학중인 자녀가 거주하고 다른 하나는 월세 받음	(임대)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해외부동산 취득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면제
4 (주D는 OO국 소재 외국법인에게 수출을 하면서 (주D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 소재 서류상 회사를 우회하여 수출	법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5 (주E는 저세를 국가인 OO국 및 △△국에 설립된 현지법인에서 매년 고객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주E에 배당하지 않음	(배당소득 관련)법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6 (주F는 OO국에 소재한 현지법인에게 자금을 이자 수취없이 수차 대여함	(미수취 이자소득 관련)법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미신고된 역외소득, 자진신고해야 할까?

세법상 거주자라면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내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해야 할 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과세망을 피해 세금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및 90여개 국가와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맺어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중인 금융계좌 잔액 및 해당 계좌에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예정임에 따라 당국의 역외세원 감시망은 촘촘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신고되지 않은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회수방법을 놓고 고민중이거나, 지속적으로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등 과거 신고하지 못한 역외재산·소득이 걱정이라면, 3월말로 종료되는 자진신고제도를 활용하여 세법상 가산세와 과태료 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상의 과태료 등을 면제받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월까지 역외소득·
재산을 자진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세부와
제척기간내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이준 IBK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컨설턴트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희망컨설팅 프로젝트'에서
Green 경영 컨설팅을
담당하는 전문가다.

본색을 드러내는 현금흐름

세계 경제가 또 한 번 출렁이고 있다. 기업들에는 무엇보다 생존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외형 확대보다는 현금흐름경영에 초점을 둔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많은 중소기업 CEO는 1997년 및 2009년 외환위기 등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대외적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익 중심, 양적 확대 중심의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 수익 창출과 양적 확대를 통한 성장은 중소기업에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나 좀비기업 퇴출 같은 대외적 변화가 감지되는 요즘은 기업의 현금흐름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절대량은 기업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현금이 없으면 기업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부 자금 의존성 높은 중소기업 경영

현금흐름경영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다. GE의 전 CEO인 잭 웰치를 필두로 미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현금흐름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일본이나 유럽도 기존 수익 중시 및 외형 확대 중심 경영에서 현금흐름 중심 경영으로 경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 현금흐름경영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인지한 뒤에도 수익 및 양적 확대 중심의 경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현금흐

름경영으로 경영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기업이 많지 않다. 현금흐름경영을 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현금 범위 내에서 신규 투자를 하거나 인수·합병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보다 많은 돈을 투자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흐름이 적은데도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 대규모 차입이나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외부로부터 수혈하고 있는 것이다. 외부 자금에 의존성이 크면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이 생존 자체에 위협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현금흐름경영은 기업의 일정 기간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영업현금흐름과 투자현금흐름, 재무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현금흐름 인자(Driver)를 찾아내고 관리하는 데서 시작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영업현금흐름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판매·구매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모든 거래로 정의할 수 있다. 투자현금흐름은 말 그대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기업유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영업활동을 위해 토지, 건물, 기계 장치, IT 환경 등에 투자하는 활동이 여기에 속하는데 기업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재무현금흐름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다. 자금 조달 및 상환, 주주로부터의 증자 및 주주에 대한 배당 등 자본거래활동으로 구성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활동을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신주 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양(+)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부(-)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일 때 현금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이상적인 기업이 된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인자들은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령 매입채무회전을 이 낮은 기업이면 매입채무회전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보유자산의 수익성이 낮은 기업은 저수익 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현금 확보 방안이 주요 과제로 선정될 수 있다.

현금흐름경영과 기업의 가치

첫째, 기업의 부실화 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현금흐름경영을 하면 기업의 부실화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는 부채의 과다 사용 여부를 투자 집행 전에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적정 부채 비율, 안정적인 자기자본 수준, 유동성 확보, 차입금 의존도의 관리

를 통하여 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현금 수준에 적정한 전략투자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기업의 재무 상황과 회사의 전략적 목표를 고려해 합리적인 장단기 전략과 기업 성장에 대한 가이드를 설정할 수 있다. 경기 침체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조직 전체에 걸쳐 지출을 줄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미래 성장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기 전략과 단기 운영 전략을 구분해야 하며 이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리 없이는 불가능하다.

셋째, 현금흐름경영은 기존 제품 및 신 제품에 대한 정확한 시나리오 분석 및 예측을 가능케 한다. 정확한 시나리오 분석에 따른 예측은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전제하고 자본 예산을 결정하며 경제 흐름에 따르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세우는 변화와 혁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공급된 유동성으로 각국의 재정 악화 가능성,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언제든 커질 수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단순히 수익과 양적 확대 중심의 경영전략만 고수하면 기업의 생존과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이제는 생존이 관건인 시대이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전사적 차원의 현금흐름경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전사적 차원의
현금흐름경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통일경제의 전문가다.

북도발로 촉발된 개성공단 위기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고 출발한 2016년.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국제사회를 향해 메시지를 던졌다.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던져진 도전행위,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란 뼈아픈 조치를 단행했다.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기업리스크가 높아진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핵을 비롯한 군 무기 개발에 외화를 쏟아붓고, 김정은 치적 사업에 돈을 엄청 퍼부어 금고가 거의 바닥이 난 지경에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외화 유입 차단은 북한 지도부에게는 커다란 아픔이 될 것이다. 개성공단은 외국 투자자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일종의 가늠자 역할을 했던 곳인데,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북한이 추진하는 20개 경제개발구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뻔하다. 세계 어느 국가의 기업도 리스크가 높은 북한에 더 이상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근로자 5만 4,000명과 그 가족 20만 명은 개성공단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됨으로써 생계 수단이 사라졌다. 북한 지도부의 오판으로 북한 주민들의 피해만 커진 꼴이다.

북한 당국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주민들을 대대적으로 선동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은 깨끗한 공장에서 편하게 일하던 것을 그리워하지 않을까. 북한 주민들에게는 개성공단은 최고의 직장이었고, 생활공간이었다. 이런 개성공단이 북한 지도부의 도발행위로 중단됐으니, 그 원망의 화살을 북한 당국으로 돌릴 것은 명백하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같은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멈추고, 변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 북한이 안보위기를 멈추고 시장경제가 작동되는 공단으로 전환하면 개성공단은 재가동을 넘어 상생의 좋은 모델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24개 우리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원부자재·완제품의 손실이 막대하고, 납품 클레임이 발생하는 등 영업 손실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기업의 5,000여 개 협력기업 경

영악화는 더욱 우려된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신속한 보험금 지급으로 손실을 보상하고, 기업 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대체생산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거래선이 끊기지 않는 판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 정부가 기존 대출 상환 유예,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1:1 현장 맞춤형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장 대책이 계속 나와야 한다. 이번 희생을 계기로 한반도에 번영과 상생의 봄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북한이 안보위기를 멈추고 시장경제가 작동되는 공단으로 전환하면 개성공단은 재가동을 넘어 상생의 좋은 모델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우선지원 대책

	주요 대책	세부지원내용	소관부처
정책 지원	남북협력기업 긴급 지원	• 남북협력기업의 대출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 보험금 지급 절차 착수 * 투자손실액의 90%, 기업당 70억 원 내	통일부
	기업대출 상환 유예	• 금융회사, 중진공,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상환 유예	금융위, 중기청
	신보, 기보의 보증 연장	• 신보와 기보의 보증액 전액 만기 연장(1년 원칙, 연장 가능) • 보증 연장 시 우대 수수료 적용(0.5%)	
	금융수수료 부담 완화	• 입주 중소기업이 금융 이용 시 각종 수수료 우대 또는 감면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추가 여신 공급 및 금리 우대 • 민간은행 대출 절차 간소화, 대출 금리 유지 또는 인하 협조 요청	
세제, 공과금 지원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월)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 연장 • 기고지시 세금 징수 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기재부
	지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 • 기고지시 지방세와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	행정부
	공과금 납부 유예	• 전기요금 납부 유예	산업부
정부 조달	납기 연장	• 납품 연기 요청 시 납기 즉시 연장	조달청
	납품 보류시 제재 면제	• 종합소평물 등록 물품의 경우 납품 보류 요청 시 제재 없이 거래 정지	
	단가계약해지	• 업체가 단가계약 해지 요구 시 제재 없이 계약 해지	
고용 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 휴업·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고용·신채보험 6개월간 30% 감면	고용부
	사회보험료 납부 연장 등	•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및 체납 처분 유예 • 건강보험료 6개월간 50% 감면	
	임금체불 관련 지원	• 임금 체불 발생 시 사업주 용자제도 또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	•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및 허용 한도까지 즉시 신규 고용 허용	
대체 생산지	대체공장	• 산단공 지식산업센터 유휴공간을 대체공장으로 제공: 임대료 1년 면제, 추가 2년간 50% 감면 등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해 입지 매입과 설비투자 자금 지원	산업부

자료 : 정부합동대책반

한눈에 읽는 경제 동향

GLOBAL

불안감만 팽배한 글로벌 금융시장

중국에 이어 유로존과 일본 경제마저 불안한 가운데 미국의 나홀로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기타 주요국들의 엇갈린 통화정책(Great Divergence, 대분열)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미국



주: 전월 대비 자료: FRB

미, 견조한 고용 증가가 생산과 소비 회복을 견인

2015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양호한 소비와 주택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재고조정 등으로 0.7% 성장에 그쳤으며 연간 경제성장률은 2년 연속 2.4%를 기록했다.

1월 산업생산은 자동차 생산 증가 등으로 제조업 생산이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난방 수요 증가로 유틸리티 부문이 2014년 11월(0.9%) 이후 최대인 0.9%를 기록했다. 1월 소매판매도 자동차 판매 증가 등으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1월 실업률은 4.9%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를 하회하였고 시간당 임금도 개선되며 고용이 견조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 생산, 소비 등 잇따라 발표된 경제 지표 호조로 미국 경기낙론이 조심스럽게 떠오르고 있다.

중국



주: 전년 동월 대비 자료: 해관총서

수출은 부진하지만 소비는 견조

중국의 수출 부진이 심상치 않다. 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1.2% 감소했다. 수출 부진 등으로 제조업 경기도 좋지 않다. 1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6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고 특히 신규 수출 주문 부진이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소비는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보인다. 2월 춘절 기간 동안 소비가 전년 동월 대비 11.2% 증가하며 전년보다 소비가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민은행, 위안화 안정화에 총력

올해 들어 위안화 가치 하락과 증시 폭락 등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당국에서는 금융 불안의 주요 원인을 헤지펀드의 공격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뒤 금융시장 불안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다.

일본



주: 전년 동기 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4%를 기록하며 2015년 0.4%성장

일본 경제성장률이 1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될 만하다.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0.8%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실업률 감소 등 고용개선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이 더디고, 4/4분기 들어 주가 하락에 따른 금융자산 감소 등이 소비 부진의 원인으로 보인다. 투자는 민간설비투자가 전기 대비 1.4%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간 반면, 주택투자는 4분기 만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아시아 최초 마이너스 금리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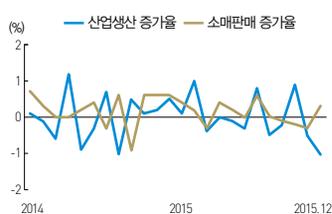
일본은행은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으나, 유가 하락 등의 악재가 겹치며 엔화가 오히려 강세로 전환되고 일본증시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KOREA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 지속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금융시장 불안 및 실물경기 둔화, 엇갈리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유가 하락, 북한 리스크 등 대외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다.

유로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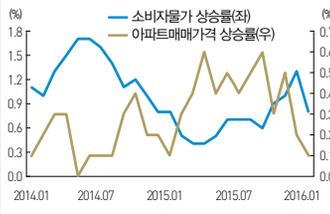
주 : 전월 대비 자료 : 유럽연합 통계청

생산 감소 및 향후 경기 기대감 하락 등으로 경기부양 필요성 증대

12월 산업생산은 에너지(-2.4%), 자본재(-1.9%), 중간재(-0.3%) 생산 등이 줄면서 전월 대비 1.0% 감소한 반면, 12월 소매판매는 연말 연휴기간 및 저유가 효과로 전월 대비 0.3% 증가해 생산과 소비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12월 실업률은 고용시장 여건 호조로 2011년 9월(10.4%) 이래 최저인 10.4% 기록, 15개월 연속 하락세다. 2016년 2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는 중국 경기 부진의 영향 등으로 전월 대비 1.3pt 하락한 51.0pt로 1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16년 2월 유로존 ZEW 경기전망지수*도 13.6pt으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ECB 총재는 ① 국제 금융시장 불안 심화, ② 주변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③ 은행의 부실채권 우려 등으로 인해 2016년 3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양적완화 시행을 시사했다.

*ZEW 경기전망지수 : 유럽경제연구센터^{ZEW}가 향후 6개월에 대한 경기전망을 조사하여 발표

소비자물가 및 아파트매매가격



주 :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아파트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자료 : 통계청, KB국민은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8개월째 동결

2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소수의견(금리 인하) 출현 속에 ①국내 경기 하강 위험 ②대외여건 및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등의 영향으로 기준금리를 2015년 7월 이후 1.50%로 유지했다.

생산·투자는 개선되었으나 소비는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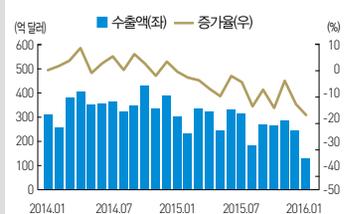
12월 생산은 석유정제(7.3%), 화학제품(4.7%)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5% 증가했고 투자도 설비(6.1%), 건설기성(7.4%) 모두 증가했다. 소비는 의복, 음식료품 등 판매 감소로 0.1%를 기록했다.

물가는 3개월 만에 0%대 재진입,

부동산 시장 3개월 연속 상승세 둔화

1월 소비자물가는 담뱃값 인상 효과 소멸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했다. 아파트매매가격은 비수기와 정부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쳤다.

수출



주 : 전년 동월 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은 신흥국 경기부진, 저유가 지속 등으로 최근 들어 가장 큰 폭 감소

2015년 12월 -14.1%를 기록했던 수출 증가율이 1월 -18.8%로 감소 폭이 늘어나, 2015년 1월부터 13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對EU(7.2%) 수출이 선박·석유화학 등 호조로 증가세로 전환되었지만 중국(경기 부진 심화, -21.6%)·미국(철강·반도체 수출 부진, -9.3%)·중동(저유가 심화로 경기부진, -31.0%) 등은 감소 폭이 확대되었다.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7.3%)가 감소로 전환되었고, 신흥시장 수요 감소에 따른 자동차·일반기계(-21.5%, -15.2%) 감소와 철강·반도체(-19.9%, -13.7%) 부진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은 유가,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일부 신흥국 경제불안, 금융상황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환율 전망 EXCHANGE RATE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금융위기 이후 일부 국가들의 양적완화 시행으로 가득 찬 물컵과 같았던 금융시장은 최근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일관성 없는 통화정책으로 출렁이고 있다. 제 3의 금융위기 설마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입 중소기업의 환율 변동성에 대한 전망과 환리스크 관리 현황에 대해 물었다.

* 2016년 2월 15~17일, 조사 대상 : 수출입 중소기업 170개사

최근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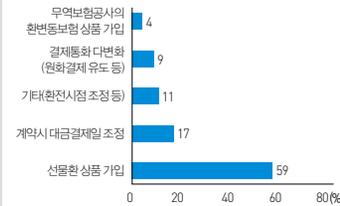
자료 : 국제금융센터

주요 IB 환율 전망



주 : 2016년 1/4분기 말 환율 전망 자료 : 블룸버그

환리스크 관리 방법



자료 : IBK경제연구소

1월 원/달러 환율은 등락을 반복

1월 원/달러 환율은 중국 증시 급락과 유가 하락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며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유가 반등과 ECB, BOJ의 경기부양 기대감으로 지난 22일 하루 만에 13.6원 급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2월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 지속

지난 1월 말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원/달러 환율은 잠시 하락했으나, 일본의 통화정책이 역효과를 일으키며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확대되자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금융 불안이 증폭되며 원/달러 환율은 크게 요동쳐 전일 대비 환율 일일 변동성(2월 1~17일)은 8.6원으로 미국 기준관리 인상 이슈로 불확실했던 2015년 평균(5.3원)보다 높았다.

2016년 1/4분기 말 환율 전망은

1,209.3원

저유가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투자은행의 2016년 1/4분기 말 원/달러 환율 전망은 평균 1,209.3원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주요 IB 21곳의 환율 전망치*를 살펴보면, 1,200원 초과 1,210원 이하로 전망한 IB가 가장 많았다. Barclays를 포함한 5개사가 1,210원을 전망했고 환율 전망 최고치는 1,235원(Rabobank)였다.

*환율 전망 응답 시기(2016.2.2~2.16)

2016년 2/4분기 말 환율 전망은

1,224.5원

2016년 2/4분기 말 환율에 대해 주요 IB들은 1,224.5원을 전망했고, JPMorgan Chase 등 일부 IB들은 1,250원을 예상한 가운데 최고치는 1,267원(Rabobank)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중소기업 56%, 환리스크 관리 안해

2월 수출입 중소기업 환율이슈조사에서 수출입 중소기업의 81%가 작년보다 올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환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기업은 44%에 불과했다. 환리스크를 별도로 관리하는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수준도 보통(64%), 낮음(16%), 매우 낮음(2%)이 주를 이루었으며 관리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기업은 18%에 그쳤다.

환리스크 관리 방법은 선물환 상품 가입(59%)이 가장 많았고 계약시 대금결제일 조정(17%)이 뒤를 이었다.

환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로는 환율 변동성 예측 불가(48%), 환리스크 관리 인력(14%) 및 이해도(14%)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 동향

TREND

12월 중소기업 생산은 전월과 동일

계속되는 수출부진과 내수 회복세 둔화로 생산 및 가동률은 전월 대비 동일하고, 고용은 감소했다.

생산



자료 : 통계청

생산, 전월 대비 동일한 수준

2015년 12월 중소기업 생산은 전월 대비 동일한 수준이고,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수출 부진과 내수 회복세 둔화로 전월의 생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였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통신·방송장비(-13.8%), 전자부품(-3.8%)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화학제품(4.7%), 석유정제(7.3%) 등이 늘어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전년 동월 대비로는 반도체(29.7%), 석유정제(6.0%)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전자부품(-14.8%), 기계장비(-11.9%) 등이 줄어 전년 동월에 비해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생산 증감률은 중소기업·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가동률 및 재고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청

가동률, 전월 대비 동일한 수준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9%로 전월 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재고, 전월 대비 상승

중소제조업 재고는 전월에 비해 0.6%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1.8%), 자동차(-6.3%)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석유정제(4.3%), 고무·플라스틱(2.4%) 등에서 증가해 전월에 비해 0.6% 상승했다.

*업종별 재고 증감률은 중소기업·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고용



자료 : 통계청

취업자수, 전월 대비 하락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40만 9,000명 감소했다. 종업원 수 5인 미만 중소기업은 전월 대비 30만 4,000명이 감소했으며, 종업원 수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 역시 전월 대비 10만 5,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299인 이하

자영업자수, 전월 대비 하락

자영업자 수는 전월 대비 15만 명이 줄어들어 7개월 연속으로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목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행정자치부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지낸 중소기업
전문가다.

패러다임의 변화, 중소기업 3.0을 논하다 ③

경제의 기틀을 다지는 중소기업 3.0

인사관리 분야



지식 경쟁 패러다임 시대 구글은 스마트 온도조절기를 제작하는 네스트를 32억 달러에 인수했다. 네스트는 대표적인 지식기반 스타트업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 패러다임도 지식기반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에 맞는 인사관리가 필요하다. (양옆) 멧 로저스, 토니 파델 네스트 공동 창업자 (가운데) 래리 페이지 구글 CEO.

중소기업 3.0은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명제를 추구한다. 이런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 인사관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처한 경쟁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어떤 성장전략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쟁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지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는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깊숙이 진입해 있다.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이 전통적 강자였던 제너럴 일렉트릭·엑손모빌·월마트 등의 시가총액을 월등히 뛰어넘었다. 임직원 수가 100명도 안 되는 신생 벤처기업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몇천억 원에 인수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는 시대이다. 미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종업원 수·매출액·자산규모 같은 지표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지식·정보·네트워크·창의성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경쟁이 국경을 뛰어넘는 초국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내에서 일등을 한다고 해서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다. 선진국의 선도 중소기업, 중국 등의 중소기업들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제조 분야 중소기업들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다.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중국 기업들의 급성장으로 인해 전자·조선·철강·화학·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제조산업이 위기를 겪으면서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도 동반 부실화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도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주요 목표로 삼는 서비스 중소기업들도 지속적 성장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해당 사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전략과 글로벌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제품과 서비스만 최고라고 해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시장 선도 전략과 글로벌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인사관리 측면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종업원가치제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시장 선도자가 되고 싶으나 그런 일을 해 낼 우수 인재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대기업에 비해 높은 연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높은 연봉을 제시할 수 없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경쟁기업보다 종업원에게 매력적인 무엇인가를 찾아내거나 만들어서 종업원가치제안

으로 삼고 이를 무기로 우수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인 제넨텍은 설립 초기에 직원들에게 거대 제약회사만큼 높은 연봉을 제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자신이 원하는 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을 종업원가치제안으로 내걸었다. 이를 통해 연봉이 높지 않더라도 특정 병을 고쳐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인재들을 확보함으로써 거대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대기업이 시행하기 어려운 주식매수선택권을 준다거나, 직원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한다거나, 미래의 성장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그런 방법 중 하나다.

둘째, 종업원 역량 개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내부에서 육성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기존 인력 중에서 잠재력이 있는 인력을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아 내부에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과 대학의 산학 협력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사 수요를 가진 기업과 함께 대학과 협력하여 '계약학과'를 만들거나,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학과의 산학 협력 지난해 현대글로벌비스와 부산 한국해양대가 산학협력을 맺었다. 인재 확보와 육성을 위해 대학과 같은 유사 기관과의 협력도 추천할 만하다.

셋째, 역량 발휘 기회 제공

중소기업들이 종업원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지만, 정작 종업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예가 많다. 부가가치가 낮은 보고서 작성, 회의 등의 업무를 대폭 줄이고 종업원이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뛰어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탁 승진시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종업원 사기 진작

기업은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버리고, 종업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뒷사람이 시킨 일은 남의 자식이고,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는 자기 자식이라는 말이 있다.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만큼 열심히 키우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적극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와 보상에서 성과주의를 최대한 적용해야 한다. 회사를 위해 헌신하고, 회사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이 더 큰 보상을 받아야만 구성원들이 일할 맛이 날 것이다. 회사의 성과가 좋을 때는 구성원들도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익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글로벌 인재 확보와 글로벌 인사관리의 전개

해외에 진출했던 대다수 국내 대기업들은 진입 초기에 큰 학습비용을 지불했다. 해외에서 사업을 전개할 인재를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진출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글로벌화를 위해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 내용과 전략을 잘 이해하면서, 동시에 현지 시장에 나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해야 한다. 내부에서 육성하기 어렵다면 대기업 해외지사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영입해 이들에게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을 이해시킨 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은 인사관리 방식을 초국적 경영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지 법인에 국내 인사관리 방식을 적용하려 하지 말고 현지 노동시장의 특성에 맞게 인사제도를 설계,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주재원의 수를 최소화하고 현지 인력을 관리적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현지 인력들에게 성장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현지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력과 혁신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확보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인사관리를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해 나가는 중소기업들을 기대해 본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때 가능하다.
이를 가능케 하는
인사관리를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해
나가는 중소기업들을
기대해 본다.**





권준화 IBK기업은행
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독일 스마트 공장 현주소 ①

인더스트리 4.0, 독일의 미래를 바꾼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CT) 기반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해 자금 등을 지원하고 2020년까지 민간 합동으로 1조 원을 투자해 스마트 공장 1만 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스마트 공장 내 미래 디지털 공장을 위한 기술 테스트 중이다.

독일의 스마트 공장은 제품의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정보통신기술(CT)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미래형 공장을 의미한다. 스마트 공장에서는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IoT), 사이버물리시스템(CPS)을 기반으로 제조의 모든 단계가 자동화·정확화되고, 가치사슬 전체가 실시간 연동되는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 스마트 공장을 통해 IoT에 의한 소재·제품·기기의 지능화로 과거의 경직된 중앙집중식 생산 체계(인더스트리 3.0)에서 모듈 단위의 유연한 분산·자율제어 생산 체계(인더스트리 4.0)를 구현하는 것이다.

독일 스마트 공장은 생산 과정에서 부품간 네트워크화를 통해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품 생산과 지능형 통제가 가능해지는 특징이 있다.

독일 스마트 공장의 확산

기업 규모별로 스마트 공장 추진 형태는 차이를 보인다. 즉, 중소기업은 대기업

보다 스마트 공장 추진에 소극적인 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10% 미만은 스마트 공장 도입을 계획·추진하지 않는 반면, 종업원 250명 미만 중소기업은 그 비중이 40%에 달한다.

독일 기업은 주로 생산 부문(86%)에 스마트 공장을 도입했다. 그 다음으로 로지스틱 및 창고저장관리(66%), 연구개발(29%), 서비스(23%), 판매(16%), 구매(13%), 행정(재무 및 인사 등·7%)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공장 도입의 확산으로 세계 스마트 공장 관련 시장 규모도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세계 스마트 공장 시장 규모는 2018년 1,705억 달러로 매년 약 8%씩 증가하는 추세다. 세계 스마트 공장 시장 점유율(2013년 기준)을 보면, 대부분이 유럽·미국·일본 기업이다. 예를 들면, 독일 지멘스(15%), 미국 로크웰 오토메이션(11%), 스위스 ABB(11%), 미국 에머슨(9%), 일본 미쓰비시(7%) 등을 들 수 있다.

독일 스마트 공장 지원정책

① 독일 연방정부

독일 정부는 2015년 4월, 인더스트리 재추진을 선언했다. 2012~2015년 시행된 인더스트리 4.0에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으로 전환한 것이다. 인더스트리 4.0은 산업협회가 주도한 반면에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연방경제기술부 **BMWi**와 독일연방교육연구부 **BMBF**가 주도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이 스마트 공장 사업을 직접지원했다면,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ICT 프로젝트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인더스트리 4.0에서는 스마트 공장 사업에 2억 유로를 투자(2012~2015년)한 반면,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다양한 ICT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 공장을 지원 중인 것이다. 예를 들어, BMBF 주도로 하이테크 산업(생명공학, 의학기술, ICT, 나노기술 등)에 속한 제조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사업 **KMU-Innovativ**'과 중소기업의 ICT 도입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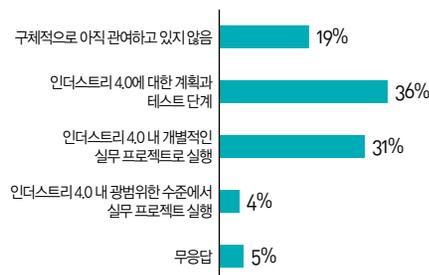
원하는 '미텔슈탄트-디지털 **Mittelstand-Digital**' 등이 있다.

②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NRW** 주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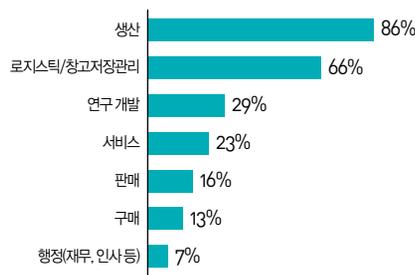
스마트 공장 도입을 위한 직접지원 프로그램은 없으나 인더스트리 4.0 내에서 포괄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인더스트리 4.0 관련 육성 프로그램에 2,400만 유로를 투자하는 것이다. 특히 NRW주는 인더스트리 4.0과 관련된 16개 클러스터(지역 네트워크) 대상으로 지원한다. 둘째, NRW주 내 독일 중소기업 인더스트리 4.0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클러스터 프로젝트로 **It's OWL *Intelligente Technische Systeme Ostwestfalen Lippe*** 이 있다. It's OWL은 2012년 만들어진 기술 네트워크로 약 180개의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46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NRW주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스마트 공장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It's OWL과 같은 기술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독일 스마트 공장은 생산 과정에서 부품간 네트워크화를 통해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품 생산과 지능형 통제가 가능해지는 특징이 있다.

스마트 공장 도입 수준



스마트 공장이 도입되는 기업 부문들



자료 : Stauten AG(2015) 주 : 독일 179개 기업 대상, 복수응답 가능



한상곤 KOTRA IT사업단장
취리히 무역관장 등 오랜
해외 무역관 근무를 거쳐
2015년부터는 우리나라 ICT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가나에 뿌리 내리는 ICT 문화

아프리카 국가 중 민주주의 체제의 선두 주자로서 타국에 가장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아프리카의 유럽이라고도 불리는 가나. 최근 가나는 ICT 인프라 개발 장려와 ICT 활용 환경을 지원하는 정부 육성정책에 힘입어 인터넷 사용자 수가 급증하며 ICT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나는 비교적 안정적인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이룩하면서 유엔 및 여러 국가로부터 인프라 개발과 공업화를 위한 지원금을 받아 경제 발전을 달성해가고 있다. 특히 정부 육성정책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ICT 문화로 인해 2014년 인터넷 사용자 수는 51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렀으며, 휴대전화는 3,040만 대가 보급돼 보급률이 118%에 달하고 있다. 2014년 8월에는 가나 통신기업인

설파인 Surfine이 중국 화웨이의 기술을 채택해 LTE를 도입하기도 했다. 또한 2015년 가나 정부가 발표한 무선통신기기 및 액세서리에 부과된 수입관세 20% 및 부가세 15%를 폐지하는 계획, ICT 테크노파크인 HOPE(Home, Office, People, Environment) 시티 프로젝트가 2016년 완공되면 가나에는 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IT 기기 수요가 증가하는 등 ICT 산업 발전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는 행렬 ICT 문화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휴대전화 보급률도 118%에 이른다. 가나 시가지 곳곳에서 휴대전화를 사려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ICT 장비의 수요 증가

가나는 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는데 발전량 감소 등 에너지 위기로 전력 부족을 겪고 있다. 향후 가스 및 신재생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발전량 부족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모바일 전자기기 사용자들은 휴대용 배터리 충전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전력 부족 문제는 이른 시일 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가나 온라인 시장에서 거래 중인 태양열, 전지, 전자 등 다양한 충전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시장은 전망한다.

시너지 시스템 형태의 방송장비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말 가나 통신청은 376개의 FM 라디오 방송국을 인가했으며 현재 291개가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이 도입되고 방송전파가 자유화되면서 라디오와 TV 방송의 송신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다. 이에 방송장비를 취급하는 기업들은 방송국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구성된 완전한 세트 형태의 시너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시너지 시스템은 하드웨어와 방송 애플리케이션을 결합한 것으로 과거에 각각의 장비들을 별도로 구매하는 방식보다 설치·유지·보수 면에서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인가받은 80개 이상의 TV, 라디오 방송국의 송신장비에 대한 신규 수요와 함께 기존 방송국들도 이미 보유한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교체 등으로 향후 방송장비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품질 한국 브랜드의 가나 진출

가나의 상권은 자금 동원 능력, 국제적인 네트워크, 신용도 등을 바탕으로 인도, 레바논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 또한 저가 중심의 공급자 주도형으로 다품종 소량 위주로 물건이 거래되며 전통적으로 중고, 재고품 처리 시장이 발달해 있다. 가나 정부는 정보통신 부문을 가장 시장성이 큰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투자 가능 유망 분야는 이동전화 핸드셋·노트북·태블릿PC·랩톱·LCD TV·모니터·모뎀 및 통신장비 액세서리·광섬유 및 네트워크 케이블·전자정부 프로젝트·ICT 장비 조립·ICT 교육기관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그렇듯 가나에도 중국산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낮은 품질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산은 품질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자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자동차 분야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우수한 평가를 얻고 있어 전반적인 한국 제품 인식 수준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가나 시장 진출을 위한 좋은 인식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가나 시장 판로 확대 전략으로는 먼저 다품종 소량 위주의 주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다. 대형 수입상이 드물고 여러 제품을 구매하는 개미군단 수입상의 위력이 큰 가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소득 수준을 겨냥한 중저가 제품과 함께 중고, 재고품 시장 겨냥도 전략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ICT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전자정부 프로젝트 수주 또는 원조 형태의 ICT 프로젝트 개발 참여 방식 등으로 가나를 서아프리카 IT 허브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한국산은 품질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가나 시장 진출을 위한 좋은 인식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장진나 노무법인 현을
대표노무사

대전시교육청 전문위원,
고용노동연수원 경임교수,
단국대 외래교수 등 노무 분야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바람직한 근로계약서 작성법

모 기업의 TV광고 덕에 비로소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노사 모두에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최근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노사 간 분쟁도 많이 늘고 추세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 관해 기업에서 실무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STEP
1**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교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총 4가지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가지 사항 이외에도 동법 시행령은 근로자의 담당 업무와 취업 장소 등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이들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상 4가지 필수 기재사항이 근무기간 중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무가 있다. 예컨대,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 연봉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일반 계약과 같이 양 당사자가 함께 작성하되,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 부분이나 사본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 처분은 단순히 벌금액의 납부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전과를 남기게 되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또는 교부만으로 법 위반 여부가 간단히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사후 법률적인 대응도 별반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필자는 종종 사용자가 근로자와 채용 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모두 반영하여 서면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는 상담을 받곤 했다. 이때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제시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처벌되지 않는다.

정규직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근무 형태는 계약직, 파트타이머, 일용직 등인데 이들에게 적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 임금, 휴일, 휴가, 취업 장소, 종사 업무 등 총 8가지(파트타이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는 근로일까지 포함해 9가지)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할 근로조건은 개수로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보다 훨씬 더 많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임금 등 8~9가지 근로조건을 모두 기재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금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작성

① 임금에 관한 사항은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까지 작성해야 적법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계약에 많은 근로 조건 사항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근로 조건은 뭐니 뭐니 해도 임금일 것이다.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 모두 임금에 관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 간 가장 분쟁이 많이 생기는 근로조건이 임금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서면으로 이러한 사항을 조목조목 모두 명시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다. 법 규정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회사가 근로계약서상 임금에 관해 월급여나 연봉 총액만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이런 경우는 회사가 월급여나 연봉에 일정 시간 분량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내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이른바 포괄(연봉)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다.

②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모두 충족 필요

포괄임금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근로시간에 맞추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각각 산정되어 있어야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대법 2008다6052 등)의 태도다. 구체적인 항목, 계산방법의 기재없이 월급여나 연봉총액만 표기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에 관한 노사 간의 약속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월지급 총액 자체가 기본급 내지 통상임금으로 간주되고, 근로자가 추가 법정수당을 요구할 경우 월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기본급 외에 법정수당을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법정산정방식에 미달되는 경우 추가지급문제는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수습기간, 비밀유지 등 특이사항도 근로계약서에 기재

법정 기재사항 이외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근로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예로 수습기간을 들 수 있다. 타 회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인턴)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수습기간에는 정상 임금의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근로계

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다. 또, 재직 시 알게 된 회사나 업무상의 기밀, 노하우를 재직 시나 퇴직후에도 동료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이나,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 내 동종업계 취업이나 창업을 금지하겠다는 약정도 할 수 있다.

STEP 4

근로계약서는 출근 첫날 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노사 간 근로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채용돼 근무를 시작했다면 근로관계는 바로 발생하고, 근로관계 발생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노사 간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첫 출근하는 날부터 근로계약 작성 의무가 있는 셈이다. 일반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수습기간 이후에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등에 가입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사례다. 또한 일용직,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직의 경우라도 근무 시작과 동시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임시직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에도 노력을 기울여 노사 간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STEP 5

인터넷에 떠도는 타 회사 근로계약서는 무의미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명백히 하고,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명백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확실하게 서면으로 작성해 놓는 것이 근로자만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는 잘못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종이 몇 장에 불과한 근로계약서라고 생각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와 같은 근무 현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임금 설계도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이나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 벌칙 부과 같은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인터넷에 떠도는 다른 회사의 근로계약서는 우리 회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앞으로는 근로자별, 직종별, 근무형태별로 법 개정 내용까지 반영해 우리 회사만의 체계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CEO 오찬 간담회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리포트』의 지면을 빛낸 중소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인 오찬 간담회가 열렸다. CEO들이 서로의 경영 철학을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2016년 1월 28일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리포트』 ‘이달의 CEO’ 칼럼에 소개된 CEO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오찬 간담회가 열렸다.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리포트』에 경영 노하우와 성공 비결, 위기 극복법 등을 아낌없이 나

누어 준 CEO들의 성의에 감사를 표하고 각 산업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CEO들이 직접 만나 친목을 도모하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는 이봉수(주)효창전기 대표, 이은정 한국맥넬티(주) 대표, 노시철(주)인터로조 대표,



오찬 간담회 12명의 중소기업 CEO가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윤대현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최신 마음 관리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성명기(주)여의시스템 대표, 솔로몬산업(주) 유종국 대표, 성호전자(주) 박영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 1월 취임한 고대진 IBK경제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리포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하며 주변의 많은 CEO에게도 일독을 권해주길 당부했다. 더불어 2016년 한국 경제를 ‘엄동설한의 초가집’과 같은 형국이라고 전망했다. G2 리스크 등 외부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기업의 체력은 약해져 있어 매서운 겨울 추위를 막아내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고대진 소장은 “이런 때일수록 슬한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선 훌륭한 CEO들의 기업경영 노하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IBK경제연구소에서도 중소기업 CEO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 큰 추진력이 필요한 CEO를 위한 격려

고대진 소장의 인사말 후 윤대현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강연이 이어졌다. 피로와 불안에 지친 사람들에게 최신 신경과학과 정신의학에 근거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힘과 기술을 전파하는 그는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리포트』에도 칼럼을 연재하며 독자들에게 고갈된 감정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창조성과 최신 마음 관리법’을 주제로 강연해 참석한 CEO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윤대현 교수는 ‘번아웃(Burnout)’으로도 불리는 소진증후군에 대해 상기시켰다. 소진증후군의 1단계 초기 3대 증상은 ‘잠이 잘 오지 않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치매에 걸린 것처럼 깜빡깜빡한다’ ‘이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일에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는 것이다. 2단계에는 ‘다 때려치우고 어디로 떠나고 싶다’는 심리적 회피 반응이 있을 수 있으며, 이전에 즐거웠던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은 행복에 대한 내성(Resistance)이 나타난다면 소진증후군 3단계로의 심해봐야 한다.

윤대현 교수는 소진증후군에 빠지기 쉬운 지친 현대인을 위해 ‘자기 연민 훈련(Self-Compassionate Mind Training)’을 강조하며 내가 나를 사랑하는 훈련법 세 가지를 알려주었다. 먼저 다른 사람과의 따뜻한 연민과 공감을 나누는 소통이 필요하다. 사람은 대화의 내용보다 멋진 반응에서 위로를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계절의 변화를 즐기고 자연과 교감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루에 10분 사색하며 걷는 것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술, 음악과 같은 작품을 곁에 두고 자신을 투영해 보는 것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윤 교수는 말했다. 



고대진 IBK경제연구소장은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리포트』와 인연을 맺은 중소기업 CEO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민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하루 1%>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실행이 답이다>
등 다수 심리학 저서의 저자다.

실행력 3배로 높이기

연초에 세운 무리한 계획들로 되레 기운 빠지기 쉬운 때다. 하루 이틀 잘 지켜지던 계획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쁘거나 귀찮다는 등의 갖은 핑계로 걸러지다 어느새 싹 잊혀지고 말았을 것이다. 연초의 계획을 다잡아주는 실행력 3배 높이는 방법을 소개한다.



새해가 된다고 갑자기 슈퍼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원더우먼이 되는 것도 아닌데 해가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신년 결심을 한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 직장인 중 89.3%가 신년 결심을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중 62.6%는 1개월 이내에 중도 포기한다. 또 18.9%는 작심삼일은커녕 시작도 못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중도 포기하게 된 이유 1위로 '의지박약'(62.4%)을 꼽았다.

작심삼일의 원인이 정말 의지박약 때문일까? 아니다. 진짜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결심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즉,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실행을 방해하는 돌발 사태에 대한 백업플랜이 없기 때문이다. 독일 콘스탄츠 대학 골비처 박사는 두 집단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작심삼일의 중요한 원인이 액션플랜의 부재 때문이라는 사실을 실험으로 검증했다.

한 집단에는 연휴 기간에 반드시 실천하고 싶은 결심 한 가지를 하게 했다. 또한 집단에는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천할지, 그 실천 과정을 생각해보게 했다. 실험 결과, 결심만 했던 집단은 단지 22%만 실천했지만, 실행 시나리오를 상상해본 액션플랜 집단은 무려 62%나 계획했던 것을 실천했다. 실천 과정을 상상하는 것, 즉 액션플랜을 만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성공률을 3배나 높일 수 있다.

이 간단한 실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결심을
실천하는 과정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성공률을 현저하게
높일 수 있다.**



TIME OFF

CEO의 휴식



사례 ① 결심만 하는 사람

매일 운동 ▶ 시작도 못하고 포기할 가능성이 많다

사례 ② 결심 + 액션플랜

매일 1시간 운동 + 운동복을 준비해 두고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 1시간씩 조깅

▶ 일단 시작은 하지만 옹두사미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

사례 ③ 결심 + 액션플랜 + 백업플랜

매일 1시간 운동 + 운동복을 준비해 두고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 1시간씩 조깅.

비가 오면 조깅 대신 2층 계단을 3회 왕복

▶ 결심을 하면 끝까지 실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결심을 실천하는 과정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성공률을 현저하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침 운동

을하기로 결심하는 경우, 잠들기 전에 운동복을 미리 챙겨놓고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벌떡 일어나서 골목을 한 바퀴 돈다'라고 구체적인 과정을 상상하기만 하면 된다.

액션플랜만으로는 부족하다.

백업플랜을 준비하라!

아침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학원에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실연을 당했다며 한 잔 하자고 하는 바람에, 금연 계획을 잘 지켜왔는데 부부 싸움을 하는 바람에... 살다 보면 아무리 비장한 결심을 해도, 아무리 멋진 액션플랜을 마련해 놓아도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가 발생하여 우리의 의지를 꺾는다. 헬스 한 번 빠진 것이 계기가 되어 운동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고, 밤에 먹은 라면 한 그릇 때문에 다이어트 결심이 도로아미타불로 끝난다. 술에 취해 끊었던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댄 다음 '그럼 그렇지' 하고 자포자기하면서 다시 흡연자가 된다. 실패자들은 그렇다.

반면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무엇을 결심하건 가능한 돌발 사태를 모두 예상해 본다. 그리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둔다. 새벽에 조깅을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온다면? 공부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술을 마시자고 한다면? 화가 치밀어 끊었던 담배가 피우고 싶어진다? 결심을 방해할 수 있는 이런 돌발 사태를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면 된다.

결심을 하고 시작도 못하는 사람과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 그리고 결심하면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왼쪽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그대의 신년 결심, 안녕하십니까?

벌써 해가 바뀐 지 두 달이 지났다. 여러분의 신년 결심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혹시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는가? 빠졌던 체중이 다시 늘었는가? 그래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들지는 않는가? 하지만 절대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자. 실패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실패했다고 처음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간 것도 아니다.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그만큼 더 나아졌고, 시도를 거듭할수록 그 일은 점점 더 쉬워진다.

심리학자 프로차스카의 연구에 따르면 단 한 번의 결심으로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전체 금연 성공자의 5%에 불과하다. 하지만 금연에 실패했다가 다시 금연을 시도하게 되면 처음으로 금연을 시도한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무려 200%나 더 높아진다. 어떤 분야건 성공한 사람들은 거듭된 실패에도 재도전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 자리에 섰다. 결심을 실천에 옮겨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대로 된 액션플랜과 백업플랜을 준비하여 다시 도전하면 지금까지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 인생

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쉽다. 연애도, 공부도, 자녀 교육도 그렇다. 실행력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렛대란 무엇일까. 작은 힘을 가해서 큰 일을 하게 해주는 모든 수단과 방법, 도구를 말한다. 직원들이 지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들이 게으르거나 불성실해서가 아니다. 효과적인 지렛대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계획대로 실천하게 만들고 싶다면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돌발 사태에 대한 백업플랜을 만들도록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야 한다. 

Try Small Project!

실천하고 싶은 작은 결심 한 가지를 찾아보라. 그리고 그 결심을 실천하기 위한 액션플랜과 실천을 방해할 수 있는 돌발 사태 및 그에 대한 백업플랜을 세우자.

01 반드시 실천하고 싶은 작은 결심 한 가지

02 그 결심을 실천할 구체적인 액션플랜

03 돌발 사태 및 백업플랜

HUMANITIES

인문학 여행

WRITER 이현숙 IBK기업은행 기업지원부 팀장



이현숙 IBK기업은행
기업지원부 팀장

숫자로 이야기하는 평범한
은행원을 넘어 글로 중소기업
CEO와 소통하고 교감한다.
<사장의 인문학> 저자.

피렌체 <전망 좋은 방> 사랑과 현실, 선과 악 드러내기

피렌체는 '꽃'이라는 의미다. 토스카나 지방에 있는 피렌체는
그래서 사시사철 화사하고 영롱하다.



"피렌체에서 깨어나는 일, 햇살을 비추는
거실에서 눈을 뜨는 일은 유쾌했다. (중략)
창문을 활짝 열어서는 일, 익숙하지 않은
결실을 푸는 일도, 햇빛 속으로 몸을 내밀고 맞은
편의 아름다운 언덕과 나무와 대리석 교회들,
또 저만치 안쪽에 아르노 강이 강둑에
부딪히며 흘러가는 모습을 보는 일도 유쾌했다."

영국의 작가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는 그의 소설 <전망 좋은 방>에서 피렌체를 이렇게 표현했다. 피렌체에서 아침을 맞는 것은 진정 설레는 일이다. 여행객들은 두 오모 성당 근처나 아르노 강변에 숙소를 정한다. 그것은 고색창연한 예술의 향기와 르네상스의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일 터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 밖으로 두오모의 붉은 색 돔과 색이 바랜 외벽이 보이고, 햇빛과 함께 성당 종소리가 방안으로 밀려들어올 때 누구라도 신비스러운 느낌에 이끌릴 것이다. 피렌체는 황홀한 도시다.

피렌체 역사지구는 중세의 유적과 함께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을 광장이나 골목에 배치해 도시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이고 박물관이다. 비좁은 뒷골목을 걷다 길을 잃어버려도 고풍스러운 건물과 그 건물이 소장한 예술 작품들을 만난다. 그래서 피렌체에서는 걸어야 한다. 발바닥으로 전해오는 오래된 돌길의 질감을 느끼고 단테와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와 보카치오를 떠올리며 수백

년 전에 그들이 펼쳤던 르네상스의 궤적을 찾아가야 한다.

인간의 희노애락, 감정의 외출

왜 하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되었을까. 그 이유는 로마 교황청의 주거대 은행이 피렌체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교황청은 유럽 전역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자금을 관리할 은행이 필요했는데 피렌체의 메디치 은행이 바로 이 비즈니스의 주역이다. 13세기 피렌체의 화폐 플로린^{Florin}은 당시 유럽의 기축통화였다. 이미 경제의 중심이 피렌체였다는 얘기다. 전 유럽으로 지점을 확장하던 메디치 가문은 교회의 분열이 한창이던 때에 불법 교황으로 투옥되었던 요하네스 23세를 거금을 내고 석방시켜 주면서 일약 영웅으로 떠올랐다. 이를 본 유럽의 군주들과 후대 교황들이 앞다퉀 메디치 은행에 러브콜을 보냈다. 믿을 만한 은행이라는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피렌체는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잡으며 유럽의 돈을 쥐게 되었다. 한편 길드와 함께 성장한 시민계급은 정치적으로 힘을 받으면서 피렌체 공화정을 떠받치는 주춧돌이 되었다. 도시로 모여든 지식인들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활자화했다. 성서가 인쇄되고 사람들은 출판물을 통해 신과 소통하였다. 신은 이제 더 이상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인간의 내면을 노래한 시인들, 인간의 육체에 눈을 돌린 예술가들이 서로의 영감을 교환했고 인간의

희로애락을 공유했다. 아름다움에 대한 탐구가 거룩한 신에게서 고뇌하는 인간으로 이전된 것이다. 억눌려 왔던 개인의 감정이 밖으로 뚫려 나왔고,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의 삶을 꿈꾸었다. 마침내 중세의 커튼이 걷히고 세상은 신의 모드에서 인간의 모드로 전환되었다. 봉건적 가치들은 재생 불가능한 것으로 분리되어 가속으로 수거되었다.

1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의 교양인들에게 피렌체는 죽기 전에 꼭 가야 할 여행지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잘 드러낸 작품이 〈전망 좋은 방〉이다. 영국 처녀 루시는 부유한 친척과 함께 피렌체로 여행을 온다. 아르노 강 옆의 베르톨리니 펜션에 묵은 그녀는 ‘전망 좋은 방’을 얻기 위한 실랑이 속에 에머슨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소설은 사랑과 현실, 선과 악을 드러내며 유쾌하게 전개된다. 루시와 에머슨이 거닐던 피렌체. 산티시마 광장의 페르디난드 상, 산타크로체의 단테 기념비 그리고 시뇨리아 광장, 오렌지빛 피즐같은 지붕들, 아르노 강과 다리, 성벽 너머의 언덕과 사이프러스 나무들. 소설 속 피렌체의 풍경과 전망이 더없이 아름답다. 3월이다. 봄의 햇살이 쏟아진다.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과 산타크로체 교회 앞 광장에도 2016년 새 봄의 기운이 가득할 것이다. 당장 피렌체로 떠날 수 없다면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책은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떠날 수 있는 여행 아닌가. 

이달의 행사·전시 일정

SWEET 2016



March

16

일시 3월 16~18일
장소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 및 회의실
주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록 온라인(www.sweet.or.kr) 및
현장등록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SWEET'의 11번째 전시 행사가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다.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네트워크 형성과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리다. 'SWEET'은 2008년에 국내 전시회 중 최초로 국제전시인증기구 UFI 인증을 획득했고, KOTRA와 공동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전시회다.

주요 내용

신사업 분야의 국내외 우수기업과 에너지 공공기관이 대거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09

프리뷰 인 대구 2016

일시 3월 9~11일
장소 대구 EXCO 1층
주최 대구광역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등록 온라인(www.previewin.com) 및 현장등록



섬유 전시회인 '프리뷰 인 대구 2016'의 키워드는 창조·융합·혁신이다. 첨단 기능성·친환경 섬유·아웃도어·원사·니트·DTP·부자재·텍스타일 디자인 등 다양한 아이템을 전시

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기회를 제공한다. 부대 행사로 트렌드 설명회, 신소재 PT Show, 수출 상담회, 국제 섬유소재 세미나가 마련된다.

09

Automation World 2016

일시 3월 9~11일
장소 서울 COEX 1층 Hall A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등
등록 온라인(automationworld.co.kr) 및 현장등록



약 300개 업체, 900개 부스, 3만 명의 바이어가 참여하는 대규모 박람회다. Automation World 2016을 통해 전자·자동차·화학·제철·선박·식품·포장 등 다양한 제조업계 종사자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스마트 공장 해외 사례 리뷰, 미래형 센서 응용 및 최신 동향 사례, 스마트 산업용 로봇 세미나 등 여러 부대 행사도 기대할 만하다.

17

제32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KIMES)

일시 3월 17~20일
 장소 서울 COEX 전시장 1,3층 전관
 주최 한국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등록 온라인(www.kimes.kr) 및 현장 등록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의료 폐기물 시설, 첨단 병원 시설, 의료 정보 시스템, 환자 수송 자동차 산업 등 의료와 관련된 여러 산업의 융합과 신기술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전시회다. 또한 국내 의료 산업 정책, 의학술, 신기술, 해외 마케팅 세미나 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23

Coating Korea 2016

일시 3월 23~25일
 장소 인천 송도컨벤시아
 주최 인천관광공사 등
 등록 온라인(www.coatingkorea.com) 및 현장 등록



'Coating Korea 2016'은 국내 코팅·접착·필름 산업을 대표하는 전시회로 '국제표면처리·도금·도장기술산업전'과 국제콘퍼런스인 'Sms Korea 2016'을 동시 개최한다. 중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글로벌한 파트너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18

제3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일시 3월 18~24일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등록 온라인(www.ievexpo.org) 및 현장 등록



국내외 전기자동차 기업들이 다수 참가하는 전시회.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 후원사 및 전시기업 간의 네트워킹 기회 등이 제공된다. 순수 전기자동차, 전기차 배터리·충전기 등 전력에너지, 디바이스 및 인프라, 전기차 관련 제품 생산 업체와 더불어 전기자동차 관련 학회 등이 참여한다.

■ 그 밖에 관심 가져볼 만한 행사

DIY 핸드메이드쇼 2016

기간 3월 10~13일
 장소 창원컨벤션센터
 홈페이지 www.diyshowkorea.com

대구건축박람회

기간 3월 24~27일
 장소 대구 EXCO
 홈페이지 www.dahos.or.kr

부산커피앤디저트쇼

기간 3월 16~19일
 장소 부산 BEXCO 본관 3홀
 홈페이지 www.busancafeshow.co.kr

제7회 경남국제식품음식박람회

기간 3월 24~27일
 장소 창원컨벤션센터
 홈페이지 foodfair.co.kr/home

세텍메가쇼 2016 시즌1

기간 3월 17~20일
 장소 서울 SETEC
 홈페이지 www.megashow.co.kr

2016 헤어월드&인터뷰티페어코리아

기간 3월 27~29일
 장소 일산 KINTEX 7, 8홀
 홈페이지 www.hairworld2016.kr

봄이 피어난 식탁

따뜻한 바람이 불고 들판에 생명이 피어나는 계절, 먹거리가 풍성한 봄이 성큼 다가왔다. 봄을 맞아 다양한 재료로 입맛 돋우는 뷔페를 소개한다.

스트로베리 컬렉션

제철 맛은 딸기를 다양한 디저트로 맛볼 수 있는 딸기 뷔페다. 벨기에 출신의 수석 파티시에인 프레드릭 스켈터의 지휘 아래 핑크 초콜릿 풍류, 딸기 피자 등 특색 있는 메뉴를 만날 수 있다. 4월 24일까지 주말에 한해 인터콘티넨탈 호텔 로비 라운지&바에서 맛볼 수 있다.

가격 성인 4만 5,000원 어린이 2만 7,000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시간 12:00~14:30 & 15:00~17:30

문의 02-559-7603

주차 건물 주차장 이용(3시간 무료)

추천 디저트 뷔페지만 한 끼 식사로도 훌륭



오채담

오감을 만족시킨다는 모토를 이름에 담은 오채담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전통 한식을 지향하는 웰빙 한식 뷔페다. 총 220개의 좌석이 있고 부산 태종대로 가는 중간지점에 위치해 멋진 영도 앞바다의 경치를 즐길 수 있다. 식사 시간은 입장 후 최대 2시간까지다.

가격 평일 점심 1만 8,900원 평일 저녁&주말 2만 2,900원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355

시간 11:30~22:00

문의 051-404-5012

주차 건물 주차장 이용(무료)

추천 다양한 연령대가 같이하는 가족 모임에 적합

기업을 움직이는 창의성의 힘

창의성은 직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를 관통해 혁신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힘을 가졌다. 실제 사례로 기업의 창의성을 풀어낸 책 3권을 소개한다.

하드웨어 스타트업 성공 이야기 70

세계를 정복한 성공 방정식

박명호 지음 | 한스미디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새로운 제조업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현재, 세계적으로 성공한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그들의 상상력과 기술력을 알아본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새로운 제조업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현재, 세계적으로 성공한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그들의 상상력과 기술력을 알아본다.

혁신의 대가들

21개 혁신기업들의 비밀

카이영겔 등 지음 | 비즈니스북스



지난 10년간 최고의 혁신기업 사례로 선정된 기업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알려준다. 코카콜라, 페라리와 같은 세계 최정상 기업들의 사례와 경영자의 통찰력을 담아낸 저성장 시대의 필독서다.

지난 10년간 최고의 혁신기업 사례로 선정된 기업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알려준다. 코카콜라, 페라리와 같은 세계 최정상 기업들의 사례와 경영자의 통찰력을 담아낸 저성장 시대의 필독서다.

인사이트 통찰의 힘

평범한 일상에서 기회를 포착하다

김철수 지음 | 비즈니스북스



SK에서 인간 중심 혁신 방법론으로 비즈니스를 이끈 저자는 “혁신은 사람 안에 있으며 그것이 의사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한다. 일상 속 인사이트를 지닌 저자의 통찰력을 살펴보자.

SK에서 인간 중심 혁신 방법론으로 비즈니스를 이끈 저자는 “혁신은 사람 안에 있으며 그것이 의사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한다. 일상 속 인사이트를 지닌 저자의 통찰력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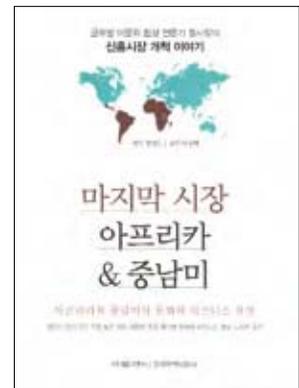
CEO에 추천하는 신규 도서

마지막 시장 아프리카&중남미

정병도 지음 | 필디앤씨

정병도 웰마크(주) 대표이사는 모두가 쉽게 도전하지 못한 시장인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렸다. 물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너무나 멀었던 두 대륙에서 정병도 대표가 직접 발로 뛰며 겪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 우리나라 무역의 미래 먹거리 시장으로 좁히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각국의 협상문화와 전략을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관점에서 저술했다.

〈마지막 시장 아프리카&중남미〉는 무역인문학 서적이자 두 대륙의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CEO를 위한 비즈니스 입문서다. 문화적 특징과 비즈니스 협상 형태, 국가별 개황과 특징, 중국이 두 대륙에 물리는 이유, 아프리카&중남미 출장 팁 등을 소개한다.



READER'S PAGE

독자 의견

Event 1

독자 엽서를 사진으로

- 1 독자 엽서를 작성해주세요.
- 2 작성한 독자 엽서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전송 (010-9117-6196) 해주세요.

실물 엽서, 이메일 등으로 도착한 엽서와 함께 취합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Event 2

동료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생일을 맞은 직원을 소개하고 축하 사연을 보내주세요. 케이크와 커피 10진을 선물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보내시는 분 연락처도 남겨주세요.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견을 보내실 때는 이름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는 방법

오른쪽 엽서의 뒷면을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도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등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010-9117-6196,
ibkceoreport@ibk.co.kr

카카오톡 아이디

magazine7

카카오톡 '친구찾기' 탭에서 magazine7을 검색하면 '매거진'과 친구를 맺을 수 있습니다.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는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16

양서희 님_ 좋은 중소기업이 많은 요즘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를 통해 관련 소식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번호에서 〈중소기업, '시니어 비즈니스'를 준비하라〉라는 기사가 인상 깊었는데, 요즘 변화하는 트렌드에 알맞게 시장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주요 전략 등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강선미 님_ 〈추적자 아내와 '도망자' 남편〉, 제목이 재미있네요.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 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선 당연히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내는 무조건 앞뒤 안 보고 남편을 추적하고 남편은 그런 답답함에 도망가고, 그런 반복적인 것은 가정에 좋지 않을 거예요.

천슬기 님_ 〈취업규칙, 작성부터 신고까지 한눈에 보기〉 내용이 가장 눈이 갔는데 이처럼 회계·인사 업무 쪽 내용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2016년에도 받아야 하는 전 직원 법정 의무교육이나 건강검진처럼 매년 챙겨야 하지만 놓치기 쉬운 내용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성우 님_ 한 직장, 한 부서에서 일하게 돼 좋은 만남이자 좋은 운명의 시초가 되었다고 모두 부러워했는데, 갑작스러운 병치레로 눈물을 흘리는 당신을 보고 나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3월은 당신의 생일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온 당신을 위해 3월은 알콩달콩 신혼의 기분에 젖게 해보겠습니다.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는 IBK경제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research.ibk.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로! 비과세 만능통장!

IBK 비과세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가입대상**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 및 농어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불가)
- **가입기간** 의무가입기간 5년
다만, 소득이 있는 15~29세 또는 일정소득 이하의 가입자*의 경우 3년
※ 총 가입기간은 5년이며, 의무가입기간은 가입대상 구분에 따라 3년/5년 각각 적용
- **납입한도** 5년 간 매년 2,000만원(최대 1억원)
- **세제혜택** 일정소득 이하의 가입자*의 경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외의 경우 200만원까지 비과세)
※ 비과세한도 초과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 농특세 배제) 분리과세
*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
* 단, 상품내용 및 관련 세제혜택은 관계법령 등에 의해 변동 가능

※ 이 안내문은 주요혜택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상품안내장 또는 홈페이지(www.ibk.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은 희망일기장입니다

아이들의 가능성이 자라고 꿈이 현실이 되는 나라
IBK기업은행이 희망으로 써내려가겠습니다.